

# '이상고온·폭설' 반복되는 겨울의 반란...올해 이어질까

### 2010년대 겨울, 이상기후 현상 잦아

### 올해 1월, 2015년 겨울엔 고온현상

### 2018년, 2014년 등 저온현상·대설도

### 2016년 초겨울엔 많은 비 내리기도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올해 최장기간 장마 기록 등 이상기후가 계속된 가운데, 이번 겨울도 이상고온 등 특이 기상 현상이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기상청은 다가오는 겨울에도 주기적인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날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0년대 겨울에도 이상기후가 여러 차례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015년 12월과 11월에는 때 아닌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1월의 경우 우리나라에 따뜻한 남풍 기류가 자주 유입돼 전국에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상 관측망을 전국적으로 확장한 1973년 이래

평균 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다.

1월 평균기온 기준 2.8도로 역대 1위를, 월 평균 최고기온도 7.7도로 1위를 기록했다.

월 평균 최저기온도 가장 높아 -1.1로 1위를 경신했다.

2015년 12월의 경우도 남서쪽에서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1973년 이래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다.

당시 월 평균 기온은 3.5도로 1위, 월 평균 최저기온은 -0.6도였다.

2015년 11월의 경우는 월 평균기온과 월 평균 최저기온이 역대 2번째로 높은 모습을 보였다.

저온 현상과 대설을 보인 해도 꽤 있었다.

2018년 1월24일부터 27일 사이에

는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이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다.

당시 일 평균기온은 24일 속초에서 -12.3도, 북강릉 -10.8도로 1월 극값을 경신했다. 일 평균 최저기온도 26일 북강릉에서 -15.9도로 2위를 경신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같은 해 1월10일부터 11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고, 특히 광주·경주 17.1cm의 눈이 내려 적설량 1월 극값을 경신했다.

2014년 12월18일에는 북강릉에서 일 최저기온 -13.2도를 기록해 12월 극값 1위를 경신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완도에 17cm의 눈이 내려 적설량 12월 극값을 경신했다.

2018년 11월24일에는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려 서울이 적설량 8cm로

1위를 기록해 11월 극값을 경신했다. 초겨울인 12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가 왔던 해도 최근 몇년 사이에 있었다.

2016년 12월21일에서 22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 강수량 12월 극값을 기록했다. 21일에는 남해 84.5mm, 고흥 64.5mm, 영주 43mm, 북장원 40.5mm, 서산 40.4mm, 이천 34.1mm 등으로 12월 극값 1위를 기록했다.

22일에는 창원 61.7mm, 춘천 43.9mm, 철원 39.5mm, 인제 30.5mm, 동두천 29.5mm, 파주 27.4mm 등으로 12월 극값 1위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1일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남부지방에서 일 강수량 극값 3-4위를 경신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도 기온 변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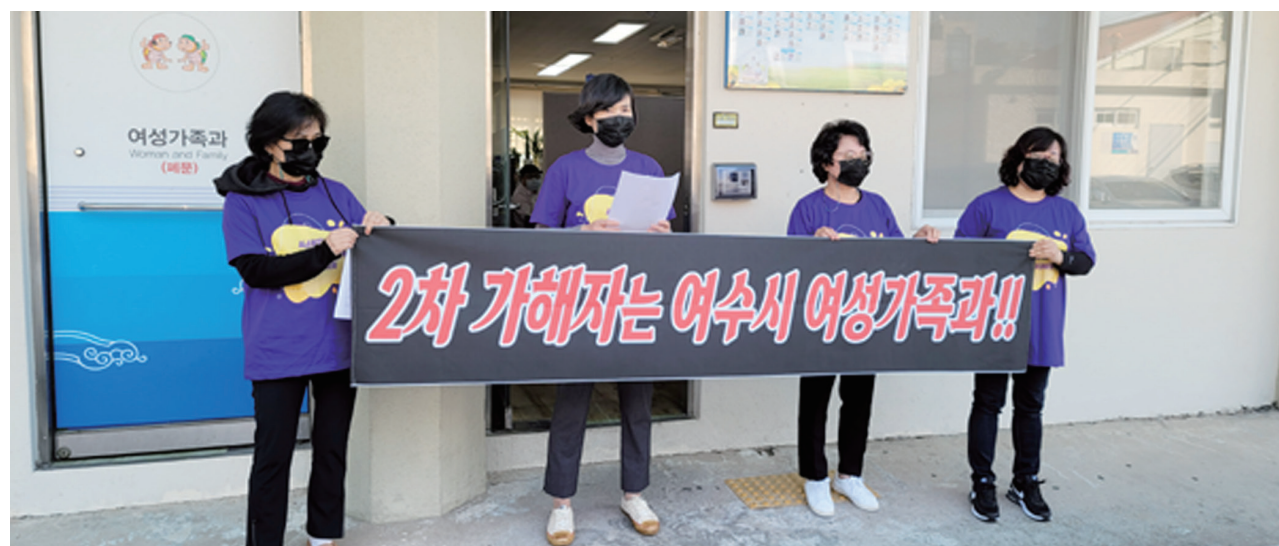
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 기온 전망과 관련, 기상청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다"면서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다"고 예측했다. 이 시기 평년 기온은 0.1~1.1도다.

강수량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지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다만 기상청은 장기예보는 개략적인 경향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호기자



**여수 성매매피해여성 생계대책 촉구** 사단법인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산하 센터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을 돕는 활동가들이 27일 오후 전남 여수시청 별관 여성가족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센터의 정상적 운영과 인권피해자들의 생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단체 "광산구, 황룡강 파크골프장 복구 중단을"

### "무의미한 복구계획 철회하고 생태공간 조성해야"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광산구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황룡강 파크골프장 복구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네트워크는 27일 성명을 내고 "서봉지구 파크골프장을 복구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광산구가 최근 구의회 본회의에 '호우피해 체육시설 복구사

업'으로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복구사업 실시계획 용역비 3000만 원을 포함, 2건(침단종합운동장·윤남 체육시설단지 각 1000만 원)의 실시계획 용역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의 추경 예산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210억 원이 들어간 파크골프장은 지난 8월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복구부터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황룡강 둔치는 홍수 때 통제되

는 구간 중 하나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영산강 유역의 강수량은 50.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홍수 때마다 파크골프장에 쓰일 복구비는 결국 매몰비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파크골프장의 천연잔디 유지를 위해 뿌리는 살충제가 황룡강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이 같은 작업을 위해 들어가는 고정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동취재본부

## '휠 고의 파손 뒤 교체 유도' 타이어점, 경찰 압수수색

### 고객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범행 정황 담겨



경찰이 27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모 타이어전문업체 지점에서 고의로 고객의 차량 휠을 파손하고 부품 교체를 권유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관이 휠 파손에 쓰인 공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경찰이 고객의 차량 휠을 파손한 뒤 부품 교체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타이어전문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고의로 고객의 차량 휠을 파손하고 부품 교체를 권유한 의혹을 받는 서구

쌍촌동 모 타이어전문업체 지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전·현직 업주와 함께 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매출 전표 자료를 확보했다.

휠 파손에 쓰인 공구 등도 사진·동영상을 촬영, 증거 수집을 마쳤

다. 앞서 경찰은 고소장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업주 A씨를 사기미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타이어 교체를 맡긴 고객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휠을 고의로 파손, 부품 교체를 유도한 혐의다.

피해 고객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해당 가맹점에 타이어 교체를 맡겼고, 휠 부품 교체 권한을 받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가맹점측이 휠을 고의로 파손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커뮤니티에 글과 함께 게시된 영상 속에는 가맹점 직원이 공구를 이용해 휠을 망가뜨리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을 통해 논란이 불거지자,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들도 경찰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또 당초 알려진 대로 해당 지점이 가맹사업 행태가 아니라 본사가 직접 체제로 운영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김민정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